제12강 비극의 탄생과 디오니소스 축제 (2)

디오니소스 신과 디오니소스 축제

출생의 기원 : Zeus 신과 Thebai 왕 카드모스의 딸 Semele 사이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말의 엄숙함이 지켜졌던 신화의 룰에 따라 어미가 죽고 Silenos에서 자라났다. 이는 결국 디오니소스 신이 ①신과 인간의 결합에서 태어났으며, ②수난 ③부활, 그리고 ④ 어떤 하나의 개별성에 갇히지 않는 변모의 신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즉 명료함, 혹은 명징성의 반대편에서 모호함, 도취(=술)의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림포스 신의 영역이 빛, 한정/제한, 개별성, 남성성, 고귀함, 귀족적 이상을 상징한다면, 디오니소스는 어둠과 모호함, 무한정성, 무차별성(=개별성 지양), 여성성, 평민적 삶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 축제(Dionysia)

1) Anthesteria
2) Lenaia: 농촌의 제전. 초겨울 11월에서 12월에 열렸으며, 소녀와 여성들이 주관했다.
3) Eleutheria: 도시 중심 제전. 폴리스의 정치적 생명력을 북돋웠다. 남근 숭배로 변모한다.

축제 공간의 이동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간다. 이는 정치적 중심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디오니소스 축제가 서민의 대변자로서 활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총체성, 평민적 삶을 대변하는 신으로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이 시대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민 전체의 교육과 계몽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제전 집행자(Choregos)는 3명의 비극 작가를 선정했는데, 이들은 3편의 비극과 1편의 사튀로스 극을 썼다. 극의 내용은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음란하기도 했다. 도취와 이야기가 디오니소스 축제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의 경우 '공유하는 절대자'가 없다는 점은 동일성 지향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

- 참고 텍스트: 니체의 『비극의 탄생』, 청하, 1998

-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충돌과 화해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니체의 견해는 "비극은 디오니소스의 꿈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수난과 변모 속에서 분열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말한다.

cf. 반인반수: 문명 이후에 추구해야 할 자연과 인간의 궁극적인 합일 상태를 뜻한다.

cf. 참고 텍스트
영국 고전학자 제인 해리슨(Jane Harrison), 『고대 예술과 제의』, 예전사, 1996